

법구경
 남의 과실은 보기 쉬워도
 나의 과실은 보기 어렵다
 실로 남의 과실은 버겁질같이 벗기면서
 자신의 과실은 얼어두나니,
 고탐한 도박사가 불행한 것을 감추듯
 -법구경-

현대불교

佛事 전년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서울특별시 모든 것
 책임 있게 드립니다
 02) 733-4800 http://www.buddha.co.kr
 신종서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9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주간) 제 291 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달 들어 20여곳 이상의 교계 각 복지관과 시설들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다양하게 열렸다. 불교의 자비정신을 펼치고 지역사회복지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런 불교복지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재 10년이 되지 않는 불교복지의 역사를 감안하면 평가받을 만한 일일이 분명하다.

그러나 구석구석을 세밀히 살펴보면 아직 부족하고 안타까운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전체적인 체계

복지

지도자 복지마인드 부족 내실없이 외형위주 성장

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불교계가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은 200여곳 정도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이 유기적이고 합리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노력에 비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말 조계종 복지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복지포럼'에서 교구본사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금도 많은 관계자들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운영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몇몇 분야로 활동이 편중되는 것도 문제다. 일례로 장애인 복지의 경우 개신교와 가톨릭은 100여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불교계는 4개뿐이다. 아동·여성 등의 분야도 마찬가지다. 운영하기 편한 복지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치아픈 분야'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심각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복지마인드' 부족이다. '불교복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소명의식이 불교복지계, 특히 교계 지도자들에게는 없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것이 있어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 정도면 됐다'는 현실안주 성향도 나타나고 있고, 단순히 포교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지금까지 외형적 성장을 이룩한 것은 자신을 희생하며 복지에 뛰어들어온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1세기 인류의 현안은 '복지'다. 복지를 소홀히 하고서는 어떤 종교도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다. 더욱이 복지의 근본이념은 불행과 고통이 없는 이상적인 삶을 지향하는 불교사상과 맞닿아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불교계의, 교계 지도자들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영우 기자(mwhan@buddhapia.com)

표점없는 디지털대장경 '무용론'

한문전문가 아니면 검색 '그림의 떡' "단락나눔·문장부호 표시 시급하다" 신수대장경 1934년 표점작업 완성

경전 전산화의 성과물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정작 경전 대중화의 반석을 다진다는 본래의 뜻을 못하고 있다. CD나 인터넷상으로 읽을 수 있는 <고려대장경>, <한국불교전서> 권4 등 디지털 한문본(本) 경전의 제작 과정에서 표점 작업을 생략해 한문에 익숙한 전문가 집단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점 작업이란 한문을 읽을 때 해석이 편리하도록 단락을 나누고 조사를 붙이고, 여기에 마침표·원표·느낌표·따옴표 등의 문장 부호를 집어넣는 일이다. 이 작업은 원전을 한글로 옮길 때 기준을 세우고 또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전산화에서 가장 중요한 최소의 정보(의미) 단위를 나누는 데 척도로 삼을 수도 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완성되고 있는 디지털 경전들은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로 포장돼 새로운 방식으로 읽는다는 것만 다를 뿐, 단락과 문장 부호 없는 원전의 지면 구성과 똑같은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련 학계나 연구소 등 경전에 대한 표점 작업에 관심을 보여야 할 곳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기미조차 없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가 20일 '불전전산화의 재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조차도 예전의 전산화 관련 세미나와 같이 의미, 전방, 기술 등에 대한 점검만 있을뿐 표점을 주제로 한 언급은 스쳐지나가는 수준이었다.

전자불전연구소는 4년째 <한국불교전서>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에 어떤 문장 부호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불전연구소 한 연구원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인력과 재정이 뒤따르지 않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의 경우 실상사 화엄학림과 함께 자체적인 표점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 공개를 꺼리고 있다.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작업이 자칫하면 학자들의 '뒀다' '뒀다' 논쟁으로 비화되고 대장경 전산화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작업은 80% 정도 진척되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작업이 마무리되는 2001년 하반기에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 관련 학계의 검증과정을 밟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장학자들은 "경전은 대부분 4~11세기의 한자와 문법을 사용해서 해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한문에 익숙한 분들이 표점작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신수대장경>의 단락을 나누고 책임을 하는 데 10년 세월 동안 고승과 석학이 매달려 이미 1934년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대만의 <불광대장경> 역시 1980년대 중반부터 학승과 학자들이 함께 토론하며 단락 외에도 마침표·중간점·따옴표·물음표·서명부호 등 10여 개 이상의 문장 부호를 사용한 대장경을 편찬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함장> <선장> <반야장> 등이 발견됐다. 그러나 국내 학자들은 "신수대장경"은 <고려대장경>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으니, 그것의 표점을 그대로 수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만 되돌아하고 있을 뿐이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불교정보 WAP 서비스

19일부터, 019-011-017-016-018 끝이여

불교계 정보서비스 사업을 주도해 온 현대불교 신문사가 창간 6주년을 맞아 (주)LG텔레콤과 손잡고 무선인터넷 불교정보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무선인터넷 통신규약)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했습니다.

본사와 무선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 프라임 인포메이션 시스템스가 연초부터 개발에 착수해 완성한 불교정보 WAP 서비스는 이동전화용 통해 불교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로 구축됐습니다. 현대불교 신문사는 019 서비스 개시에 이어 곧 011, 017과도 서비스체계를 갖출 계획이며 016, 018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불교정보 WAP 서비스 내용
 - △ 알림방: 뉴스 메뉴에서는 매일 매일의 불교관련 뉴스와 법회 및 행사, 주간 핫 이슈 등을, 알림방에는 각 종단과 사찰 단체들의 최근 정보를 담았습니다.
 - △ 공연연시: 공연연시의 상세한 일정과 내용, 물론 주최측의 연락처 및 공연연시의 특징들을 소개합니다.
 - △ 신규구독: 법문에서는 현대 고승들의 법어를, 길을 묻는 이에게에 사는 한미승인인 대령 큰스님의 신명 상담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 △ 마스터의 암시: 불교 책마당에서는 베스트 불서와 화해의 책을 검색해 볼 수 있으며, 불교관련 방송 프로그램들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불교정보검색: 기초용어사전과 불교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 △ 사찰 안내: 전통사찰과 일반 사찰은 물론 해외 한국 사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 불교카페: 게시판, 대화방, 법구와 운세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후 불교를 소재로 하는 게임방 등의 서비스도 할 계획입니다.
- ◆ 접속방법
 - 019 무선인터넷 초기화면(eri)의 정보 커뮤니티 메뉴 중 7번의 건강·종교에서 불교를 선택해 3번 불교정보로 들어가면 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북한·대만 동참 의제로"

한중일 불교우호회의서 일면스님 등 제안

23일 개최한 한중일 불교우호회의에서 북한과 대만의 참여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둘째날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온 일면스님(조계종 교육원장)과 일본측 단장 고바야시 류쇼 스님은 북한·대만 불교의 참여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일면스님은 "북한과 대만의 불교대표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동북아시아 평화와 불교정보 건설의 교두보 역할을 3국 불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쇼스님도 개인적견해를 전했지만, 연설문의 1/3 가량을 할애해 북한과 대만 불교의 참여를 촉구했다. 류쇼스님은 특히 "조약초 전 중국불교협회 회장이 제창한 3국황금유대를 위해서도 북한과 대만 불교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중국측의 답변을 촉구했다.

한·중·일 세 나라 불교대표들이 참여한 불교우호교류회의는 25일까지 서울 관문사와 롯데호텔에서 '신세계 세계문화 기원법회'와 학술심포지엄, 선언문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정성운 기자

남북불교 통일토론회 12월중 개최 변함없다

조불련, 생필품 지원요청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이 12월중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불교도 토론회 개최의 뜻을 거듭 밝혔다.

9~14일 5박6일의 일정으로 북한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를 참관하고 돌아온 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공동회장 박태스님과 박준호 사무총장, 이차기 사무국장 등 불교계 남북인사에 따르면, 13일 평북합 대표단이 조불련 청사를 방문해 박태화 위원장과 황병준 부위원장, 심상진 서기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이 남북불교도 공동토론회 개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대북지원 시 생필품 지원을 요청했다.

이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불교도가 함께 모여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여는 토론회 성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는 20일 회의를 열어 법전스님을 새 원로의장으로 선출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원로의장 법전스님 청화·이두·원명스님 새 원로의원

9조계종 원로회의는 20일 오전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공식중인 원로회의 의장에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원로회의 의장은 지난 6월 8일 탄성스님의 임기로 공석상태였다. 법전스님은 "부족한 사람이 큰 일을 맡게 되어 걱정이 되지만, 종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원로회의는 또 청화스님(곡성 성륜사 주지), 이두스님(청주 관음사 주지), 원명스님(대구 사원주지연합회장)을 새 원로의원으로 선출하고,

사무처장에 덕운스님(해인사 길상암 감원)을 임명했다. 법전스님은 보림선승원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원로의법에 따라 2004년 4월 1일까지이다.

원로회의는 종정 추대권, 종헌 개정안 인준권, 총무원장 인준권, 종회 예산 제정권, 종회 해산시 동회권한 대행권, 전계 대화상 추천권 등을 지닌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이다.

2면에 계속

금석과 연옥을 함께 힘으로 결합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늘 건강하고 각종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든 불자들이, 직강인 특선수생에게 적합한 것입니다.

眞名品

A-002

A-001

佛心の 깊이 만큼이나 깊고 찬란한 보석염주!

神祕한 氣가 발산하는 생명 에너지 광물!

佛心の 깊은 마음으로 최상급의 연옥만을 갖고 뒤아 예술로 승화시킨 보석염주를 탄생 시켰습니다.

옛 부터 오늘날 연옥이 신변 장신구로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보석처럼 연옥은 실리과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사람신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3가지 즉 칼슘, 마그네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서 갖추어야 할 경도는 6-6.5이며 인성이 아주 뛰어난 보석입니다.

다른 자기의 옥제품과는 비교가 될수없으며 모든 정성과 불심을 담은 귀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연옥

14K (Gold)

14K (Gold) 로 고정물에 삽입하여 흔들림이 없고 고정시공의 부재함상이나 지를 약으로 아름답게 조리가 되었습니다. 실용적인 옵션 No: 20-2000-002655

자석

14K (Gold)

자석의 원석을 불 형태로 가공후 14K (Gold) 반형상을 자석봉에 하여 용광로로 잠량하여 고정 시공으로 반영구적 입니다. 특허출원 No: 10-2000-002673

城滄寶石
SUNG CHANG JADE CO.

주소: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65-1
TEL: 737-6334 FAX 732-6336
http://www.scjade.co.kr